

16세기 중엽 여성 斂襲衣의 일례

- 경북 안동시 정상동 일선문씨 분묘 출토복식을 중심으로 -

이 은 주
안동대학교 의류학과

A Case Study on a Woman's Shrouds in Middle of the 16th Century - Based on the Excavation of the Mrs. Moon's Grave in Andong, Kyunbük -

Eun-Joo Lee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And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A Study on a Woman's Shrouds in Middle of the 16 Century based on the excavation of the Mrs. Moon's grave in Andong is reported in this paper.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followings are obtained:

1. From the architecture and costume in the Mrs. Moon's grave, we can conclude that Confucian funeral rites were already established in Andong region of the 16th century.

2. The articles used for funeral rites can be classified as *Bujangpum*(副葬品), *Chikwanjeku*(治棺諸具), *Bokongpoom*(補空品), and *Yumsupku*(斂襲具) and costumes for the death wrapping can be especially classified as *Yumsupeui*(斂襲衣).

3. Total 63 remains were excavated from the Mrs. Moon's grave. Among them, 3 *Chikwanjeku*, 19 *Daeryumku*(大斂具), 12 *Soryumku*(小斂具), and 29 *Supku*(襲具). *Yumsup* procedure was performed with great care. Shrouds were the casual cloths and only *Sangbok*(上服) were made for the ritual. Several *Soeui*(襖衣) were found.

4. Procedual characteristics of *Yumsup*(斂襲) include unusual direction of wrap, the meaning of *Boolyu*(不紐), and unusual *Chingsoo*(稱數) of used clothes.

5. There were 41 costumes in : Coats were *Sangbok*(上服) and *Jangot*(長衣), upper cloths were long jacket and short jacket, *Danjukori*(短赤古里), *Jeoksam*(赤衫), and *Hansam*(汗衫), Each of the trousers and the skirts were two different kinds by the form. The pair of *Hangjeon*, socks, shoes, and a cap found in this grave were also studied.

* 이 연구는 1998년도 안동대학교 기성회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Key Word : 일선문씨, 출토복식, 전통상례, 염습의

I. 머리말

지난 1998년 4월 7일, 경북 안동시 정상동에서 택지조성을 위해 분묘를 이장하던 중 450여 년 전 미이라가 발굴되어 매스컴에 보도된 바 있다. 안동대학교 박물관에서는 固城 李氏 문중의 연락으로 당시 분묘 개장에 참여하게 되었다. 李命貞(1504~1565)의 합장묘 발굴에 동참했던 본 연구자는 配 一善文氏의 분묘를 통해 당시 염습의 상태를 밝힐 수 있는 귀한 자료를 접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복식학계에서는 분묘에서 출토되는 복식류에 커다란 관심을 가져왔다. 이장 중 분묘에서 발굴되었던 출토복식들은 상장례와 관련된 풍속사 연구나 의생활사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통문화 복원을 위한 자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일선문씨 묘에서 출토된 자료는 개관 후 염습의 하나 하나의 구체적인 모습과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조선 전기의 흔하지 않은 자료이다. 종전의 출토복식 자료들은 대부분 이장 완료 후 연구자들에게 인계되어 왔기 때문에 복식 연구자료로서의 활용은 가능했으나 斂襲衣 연구로서의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그나마 개장에 참여했을 경우에도 유물 상태가 좋지 않아서 거의 수습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 일선문씨 묘의 유물 자료들의 가치가 더욱 크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일선문씨 분묘 출토 유물자료를 바탕으로 당시 염습 과정을 역으로 재구성하면서 상례 관련 문헌자료와 비교·고찰하여 일선문씨에게 행해진 염습과정과 斂襲衣의 특수성을 살펴보고

자 한다. 그리고 당시 16세기 중엽 안동 지역의 복식문화의 일면을 밝히면서, 아울러 제시된 염습의 자료들이 전통복식 디자인 개발의 기초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II. 조선 전기의 斂襲衣

1. 조선 전기의 상례 성격

염습의 사용은 유교적 상장례의 보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고려 말 성리학이 들어오면서 신진 유학자들이 불교식 상장례 대신 《朱子家禮》에 의한 3년 服制를 따르고 가묘를 세워 제사를 받들도록 하면서부터이다.¹⁾ 조선 개국 후 점차 《주자가례》가 보급되고 《三綱行實圖》 등의 교화서가 간행되면서 주자가례식의 유교적 상장례 풍속이 정착되어 갔다. 세종 2년(1420) 대비(원경왕후) 喪事의 염습에서 殯에 이르기까지 《주자가례》에 俗制를 사용했다²⁾고 하는 기록으로 보아 이미 주자가례에 속제가 융화된 유교식 상장례가 정착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세종대의 《五禮儀》를 거쳐 성종대에 완성된 《國朝五禮儀(1474)》에 의거한 상례 제도는 중종대 이후 상례의 근간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16세기 前期에 해당되는 경북 영주시 이산면 출토의 金欽祖(1461~1528) 분묘의 遺構와 염습의에서도 《국조오례의》에 의거한 유교식 상장례 제도의 확립이 확인된 바 있다³⁾. 따라서 일선문씨가 즐긴 16세기 중엽 안동지역에서도 《국조오례의》에 기초한 유교식 상장례가 행해졌다고 보는 데는 무

1) 金容德(1994), '喪葬禮 風俗의 史的 考察', 《比較民俗學》 第11輯, pp.189~213

2) 《世宗實錄》 卷第八, 十七, 二年庚子七月 ○丙子...(중략)...其服制依文公家禮參用俗制...

3) 榮州市 編(1998), 《判決事 金欽祖先生 合葬墓 發掘調査 報告書》, 榮州市

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2. 喪葬諸具와 斂襲衣

유교적 상장례에 의해 조성된 조선시대 분묘의 출토 유물 중에는 明器와 誌石을 비롯하여 일상 복식류, 상장례에서만 소요되는 복식류, 그리고 그외 여러 소품류가 포함되어 있다. 이 모든 유물들을 '상장제구'라고 할 수 있으며 매장되어 있던 부위에 따라 각기 다른 기능을 지니고 있으므로 그 기능에 따라 '副葬品', '治棺諸具', '斂襲具' 등으로 다시 세분할 수 있다.

무덤 주변과 내·외관 사이에서 수거되는 유품들도 있는데 특히 장지에서 下棺되는 과정에 사용된 것들은 '治棺諸具'로, 明器나 誌石 등은 '부장품류'로 분류되고 있다. 그리고 입관 당시 내관 내부의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무언가를 넣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 사용된 물품들은 복식을 포함하여 특별히 좁은 의미의 '補空品'으로 규정짓고자 한다.

사망 후 3일에 걸쳐 행해지는 '斂襲' 과정은 死者의 죽음을 확인하면서 시신을 싸는 세 과정, 즉 襲, 小斂, 大斂을 의미하므로 이 과정에 사용된 물품들을 통틀어 '염습구'라고 지칭한다. 단계별로는 襲具, 小斂具, 大斂具로 구분된다. 조선 중기의 문헌 《喪禮備要(1621)》⁴⁾에는 복식류를 습구, 소렴구, 대렴구 등의 염습구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 내용의 범위 설정을 위해 염습구 중에서도 특별히 시신에 입혀지고 덮혀진 복식들을 '염습의'라고 규정짓고자 한다. 염습의를 제외한 염습구에는 喪事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網巾이나 幘目, 握手, 充耳, 履, 五囊, 褥, 蓆, 衾, 枕, 絞 등이

있다.

염습의에는 시신에 직접 입혀지는 襲衣가 있다. 《禮記》에 의하면 습의는 본인의 옷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⁵⁾ 습의는 흔히 壽衣라고 하는 옷으로, 새로 제작된 新衣가 사용되거나 생시의 遺衣가 사용된다. 조선 전기의 출토복식을 볼 때, 새로 제작된 습의의 경우라도 평소의 것과 그 형태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나 크기, 바느질의 섬세함 등에서 다소 차이가 확인될 수도 있다.

물론 소렴과 대렴에는 본인의 평상시 옷을 사용한다. 뿐만 아니라 평소 가까웠던 주변 인물들, 즉 배우자를 포함한 친지들의 襚之衣(襚衣)가 포함되기도 한다.⁶⁾ 이처럼 본인과 타인의 옷이 소렴과 대렴 단계에서 上服이나 散衣, 疊衣, 上到衣, 下到衣 등의 역할을 한다.

타인의 옷이 斂衣로 사용될 때 피장자와 성별이 다른 경우나 어린아이의 옷인 경우는 복식의 종류나 크기에서 쉽게 구분된다. 그러나 크기가 작다고 해도 피장자가 지니고 있던 유년 시절의 옷이 포함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단정짓기는 어렵다. 이런 경우 피장자의 사망 당시 연령이나 당시의 가족 상황 등을 참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피장자와 연령대가 비슷하고 성별이 같은 인물의 襚衣일 경우에는 구분이 쉽지 않다. 따라서 옷의 크기가 확연히 구분된다거나 바느질 기법 등이 특별히 차이가 나는 경우 襚衣로의 가능성을 짐작해 볼 수 있을 뿐이다. 또한 수거 당시의 정황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극조오례의》〈大夫士庶人喪儀〉⁷⁾에는 습에 사용할 수 있는 옷의 수량을 大夫 5칭(士庶人 3칭)으로 규정짓고 있으며 소렴과 대렴에는 각각 19칭, 30

4) 申義慶(1621), 《喪禮備要》 上, 一~十九

5) 예외도 확인할 수 있다. 吳希文(李民樹 譯)(1990), 《瑣尾錄》 下, 第五 丁酉(1597) 二月初一日, '제 형이 습에 쓰라고 白苧赤衫 1, 草綠襦赤古里 1, 鴉青襦長衣 1, 單裙 1, 襦裙 1을 보냈고, 小殮에 쓸 것으로는 제 어머니가 襦長衣 1, 襦赤古里 1을 내놓았고...'

6) 이은주(1998), '조선 전기 斂襲衣의 一例: 金鈸祖(1641~1528) 분묘의 출토복식을 중심으로', 《比較民俗學》 第15輯, pp.100~101 참조

7) 《國朝五禮儀》 卷之八 七十二~九十五. 大夫士庶人喪儀

<표 1> 염습 단계별 사용되는 복식의 칭수와 복식 성격

복식류 \ 단계	襲(5/3칭)	小斂(19칭)	大斂(30칭)
新衣	○		
上服(祭服)	○	○	○
散衣·疊衣		○	○
襚衣		○	○

칭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염습에 사용되는 복식으로는 圓領, 搭複, 帖裡, 裹肚, 汗衫, 袴 등이 기록되어 있다. <주자가례>와 <국조오례의>를 참조하여 정리한 염습의 稱數와 그에 사용되는 복식의 성격은 <표 1>과 같다. <국조오례의>에는 염습 단계에서 사용하는 복식으로 시속을 따른 남성복의 명칭이 그대로 열거되고 있으나 사대부가 여성의 복식에 대한 언급은 없다. 단지 남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時俗의 복식을 따랐을 것으로 추정되며, 그러한 경우는 일선문씨의 염습의 자료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Ⅲ. 일선문씨 분묘 출토유물과 염습과정

1. 일선문씨의 인적 사항

일선문씨는 고성 이씨 15세손 李命貞의 부인이며 부친은 郡守 文繼昌이다. 합장되어 있던 남편 이명정은 연산군 17년(1504)에 출생하여 명종 20년(1565)에 61세로 졸한 인물로서 생전에 奉仕(종8품)를 지냈다. 고성이씨 족보에는 일선문씨의 생몰연대 기록이 없다. 단지 기일 2월 27일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발굴 당시의 얼굴 상태로 보아 남편보다 먼저 사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일선문씨의 졸년은 대략 1550년대에서 60년대 초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고성 이씨의 시조는 고려 덕종 2년(1033)에 密直

副使로서 거란의 침공을 물리친 공으로 호부상서에 올라 鐵嶺君으로 봉해진 李璘이다. 안동에 처음으로 정착한 李璘은 시조의 12세손으로 세종대에 좌의정을 지낸 容軒 李原(1368~1430)의 여섯째 아들이며 參判公派의 派祖이다. 그리고 안동시 정상동에 세거하는 고성 이씨는 13세인 李濬(1441~1516)의 후손들이다.

2. 출토유물의 내용

일선 문씨와 남편 이명정의 합장묘가 위치한 곳은 경상북도 안동시 정하 2동 산 82-1번지이다. 본 연구자가 묘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합장묘의 회곽을 깨고 외관의 뚜껑을 열어 놓은 상태였다. 묘 내부는 회곽과 소나무로 제작된 내·외 이중목관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회곽의 두께가 유난히 두꺼웠다. 묘 주변에서 지석이나 기타 부장품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묘의 전면에 있던 호패형 비석은 이장 당시 새 장지로 옮겨졌다.

일선문씨 묘에서는 총 63점의 유물이 수거되었다. 治棺諸具 중 세 점은 수거가 불가능하여 유물 번호를 붙이지 않았으며 충이와 오낭은 확인되지 않았다. 治棺諸具가 3점, 大斂具가 19점, 小斂具가 12점, 襲具가 29점인데, 수거 당시 질서 정연하게 가지런한 상태로 접혀지거나 펴진 염습의 모습으로 보아 대단한 정성으로 염습이 행해졌음을 알 수 있었다.

발굴된 순서대로 대·소렴과 습 단계로 구분하여 수거 당시의 상태와 특징 등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2~5>와 같다.

3. 염습과정의 재구성

일선 문씨에 대한 염습 과정과 염습의에 대한 내용은 일선 문씨의 대렴 교를 풀기 시작하여 습의를 수거하기까지의 과정을 역으로 추정하여 염습과정

<표 2> 治棺諸具: 내관과 외관 사이의 총진물과 명정(3건)

유물		유물명칭	색상	소재	구성양식			비고
번호	용도				단	결	유납	
1	내·외관 사이 총진	齒齧 2	소색	목재				상부 좌우, 상부 鋸齒形, 한지를 붙인 후 붉은 색으로 구름 형상을 그림
2		獸齒 2	소색	목재				하부 좌우, 상부 弧形. 한지를 붙인 후 붉은 색으로 獸(亞)을 그림
-		장저고리	황색	분사	○			완파(수습 불가). 좌측 중간.
-		버선 1쌍	소색	면포		○		완파(수습 불가), 우측 중간. 반 접어 넣음
-		기타	명정	갈변	명주	○		완파(수습 불가). 내관 뚜껑 위
3	기타	옷감	소색	삼베	○			반파. 명정 밑에 깔았던 옷감

<표 3 > 大斂具(19건)

유물		유물명칭	색상	소재	구성양식			비고
번호	용도				단	결	유납	
4	대렴01	황교 5	소색	마포	○			대렴금 밖(반 쪽 짜리 5줄), 가장 밑에 깔림
5	대렴02	종교 1	소색	마포	○			대렴금 밖, 양 끝을 세 가닥으로 가름
6	대렴03	대렴금	아청	면포		○		좌입, 소색 동정 있음
7	대렴04	한삼	소색	마포/면포	○			깃·한삼에 면포, <대렴06> 위 발부분 덮음
8	대렴05	장옷	갈변 (아청색)	명주		○		대렴금 안 상부, <장옷(대렴 06)> 위에 깔았음. 좌우 모두 이중설(비대칭)
9	대렴06	장옷	진갈변	명주		○		대렴금 안 아랫부분에 먼저 깔았음
10	대렴07	수건	소색	저마	○			얼굴 덮음, <대렴08번(한삼)> 찢던 수건
11	대렴08	한삼	소색	마포/명주	○			저마 수건(대렴 07)에 써서 얼굴 덮음, 깃·소매끝 명주설 없음
12	대렴09	장저고리	갈변	명주		○		상체 덮음. 옆트임, 안실쪽 고름 남음
13	대렴10	장옷	소색	저마	○			허리 아래 덮음. 거들지 없음. 좌우 이중설
14	대렴11	합당고	소색	면포		○		장옷(대렴 10) 아래 깔림(복부)
15	대렴12	부채	백색	한지				오른쪽 옆구리
16	대렴13	葫蘆 1	갈변	호로				葫蘆圓的, 소렴금 밖으로 정수리 우측 부위
17	대렴14	호로 2	갈변	호로				葫蘆小的, 소렴금 밖으로 정수리 우측 부위
18	대렴15	실꾸리	-	면사/견사				실꾸리와 실. 정수리 좌측 부위
19	대렴16	버선 1쌍	소색	면포		○		오른쪽 허리부분
20	대렴17	베개	소색	면포		○		머리 밑
21	대렴18	席	갈변					지욕 위(146×36 cm)
22	대렴19	地褥	갈변	명주/명주		○		철성판 위(146×36 cm)

<표 4> 小斂具(12건)

유물		유물명칭	색상	소재	구성양식			비고
번호	용도				단	결	유납	
23	소렴01	황교 3	소색	마포	○			양끝 세 가닥으로 가름. 대렴보다 고운 소재 사용
24	소렴02	종교 1	소색	마포	○			양끝 세 가닥
25	소렴03	소렴금	소색	마포	○			우입, 뒷부분에 아청색 물 옮겨짐

26	소렴04	한삼	소색	마포	○			완파.
27	소렴05	장저고리	소색	면포	○			턱아래, 안섷쪽 고름 1개 남음
28	소렴06	장저고리	소색	저마	○			머리 왼쪽 蠶衣, 아청색 물듬
29	소렴07	장저고리	소색	면포	○			머리 오른쪽 침의. 뒤집혀진 상태로 수거
30	소렴08	장저고리	갈변	명주			○	얼굴 덮음. 고름 1쌍
31	소렴09	장저고리	소색	면포	○			머리 밑. 소매가 안으로 접힌 상태로 수거
32	소렴10	장옷	소색	면포		○		우측 대퇴부, 고름 1쌍 달림
33	소렴11	치마	소색	면포		○		장옷(소렴 10) 아래
34	소렴12	장저고리	갈변	명주			○	얼굴, 수거 당시 아청색

<표 5> 器具(29건)

유 물		유물 명칭	색 상	소 재	구 성 양 식			비 고
번호	용도				단	결	유	
35	습01	대대	갈변	명주		○		上服에 두름
36	습02	上服	소색	저마	○			반파(복원). 우임. 안주름 형식의 무 《樂學軌範》 후장삼과 유사. 바느질 영성
37	습03	장저고리	갈변	명주			○	제1 저고리, 가장 길 착용(8벌 모두 좌임)
38	습04	소낭	갈변	문단	○			제1 저고리 안섷쪽 고름에 매달려 있었음
39	습05	염주	갈변	유리				제1 저고리 안섷쪽 고름에 소낭과 함께
40	습06	장저고리	갈변	명주			○	제2 저고리
41	습07	약낭	갈변	문단	○			제2 저고리 안깃 고름에 달려 있었음
42	습08	장저고리	소색	모시	○			제3 저고리, 고름 1쌍
43	습09	장저고리	소색	모시	○			제4 저고리, 고름 1쌍
44	습10	장저고리	갈변	문단			○	제5 저고리, 賸文段,
45	습11	단저고리	갈변	명주			○	제6 저고리, 여러 조각을 이어 만듦
46	습12	적삼	갈변	명주	○			제7 저고리. 싹 없음.
47	습13	적삼	소색	저마	○			제8 저고리. 가장 안에 착용
48	습14	치마	갈변	명주	○			제1 치마, 가장 곁에 내려 입혀서 발을 씌
49	습15	치마	소색	저마	○			제2 치마, 제1 치마와 겹쳐서 사용
50	습16	치마	갈변	명주			○	제3 치마, 단 부위에 tuck 장식, 누비
51	습17	치마	갈변	명주/삼베			○	제4 치마, 치마 중 가장 안에 허리에 두름
52	습18	개당고	갈변	명주/마포			○	바지 네 벌 중 가장 곁에 착용
53	습19	개당고	소색	면포		○		면포 접마지
54	습20	합당고	소색	면포	○			홀 두 벌을 허리말기에 함께 달았음
55	습21	합당고	소색	저마	○			완파(복원), 어깨끈 자른 흔적 남아 있음
56	습22	버선 1쌍	소색	면포		○		세 켤레 중 가장 곁에 착용
57	습23	버선 1쌍	소색	면포		○		두 번째 신음
58	습24	버선 1쌍	소색	면포		○		가장 안에 신음
59	습25	행전	갈변	명주	○			버선 속에 두름. 종아리 뒤로 끈 달림
60	습26	신발	소색	마포		○		굵은 마포 사용
61	습27	떡목	갈변	단자			○	얇게 솜을 들, 아청색 남음
62	습28	소모자	갈변	단자			○	솜을 얇게 둔 六舍帽. 아청색 남음
63	습29	약수	갈변	단자			○	네 귀퉁이에 끈 달림. 아청색 남음

을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시된 < 표 2~5> 자료를 기초로 하여 습에서 대렴까지의 단계를 개괄적으로 재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습 단계

상의류와 바지류 등의 습의를 준비하여 습상에 진열한다 → 大帶(습 01)를 펴고 上服(습 02)을 펼쳐 둔다 → 시신에 미리 겹쳐놓은 바지 4벌(습 18~21)을 오른쪽 여밈으로 입힌다. 허리끈은 묶지 않는다. → 바지 부리를 가지런히 하여 행전(습 25)을 친다 (그림 1) → 행전 위에 버선을 3켢(습 22~24)를 겹쳐 신긴다 → 오른쪽 꼬리로 치마 2벌(습 17·18)을 입힌다 → 습신을 신긴다(그림 2) → 치마 2벌(습 14·15)을 골반 부분으로 내려서 오른쪽 꼬리로 입힌다 (아래 여유분으로 발을 충분히 감싼다) → 겹쳐놓은 상의류 8벌에 팔을 끼우고 각각 좌입으로 입힌다 → 겹에서 두 번째 장저고리 안섯쪽 겹고름에 약낭을 묶는다 → 가장 겹에 입힌 장저고리 안섯쪽 겹고름에 소낭과 염주를 묶고 8벌의 상의 여밈을 정리한다 → (충이 끼우기) → 얼굴에 먹목(습 27)을 덮고 끈을 묶는다 → 아칭색 소모자(습 28)로 얼굴과 머리를 덮는다 → 좌우 손에 악수(습 29)를 묶는다 → 上服(습 02) 위에 습의를 입힌 시신을 옮겨 놓고 양팔은 앞으로 가지런히 모아 놓는다(그림 3) → 上服을 우입으로 여미고 대대를 동심결로 묶는다(그림 4)



<그림 1> 행전 착용 모습



<그림 2> 버선과 신발 착용 모습



<그림 3> 상의와 하의 착용 상태



<그림 4> 발굴 당시의 上服 착용 모습

2) 소렴 단계

소렴용 횡교(소렴 01)를 가로 방향으로 세 장 편다. 나중에 시신을 싸서 묶을 수 있도록 한 쪽마다 양끝을 세 갈래로 갈라 좌우 각각 9가닥으로 준비해 둔다 → 횡교 위에 세로로 한 쪽의 종교(소렴 02)를 편다. 종교의 양끝 역시 횡교 처럼 세 갈래로 갈라서 시신을 세로로 묶을 수 있도록 준비한다 → 그 위에 소렴금(單衾/소렴 03)을 편다 → 머리 부분에 소색면포 홀 장저고리(소렴 09)를 뒤집어 접어 놓는다 → 소렴금 위에 上服으로 싸 시신을 옮겨 놓는다 → 턱 아래에 한삼(소렴 04)과 면포 홀 장저고리(소렴

05)를 끼운다 → 머리 좌측에 홀 저마 장저고리(소렴 06)와 우측에 면포 홀 장저고리(소렴 07)을 疊衣로 사용한다 → 얼굴 위에 명주 솜 장저고리(소렴 08)와 아칭 명주 솜 장저고리(소렴 12)를 덮는다 → 대퇴부에 치마(소렴 11)를 접어 올려놓는다 → 그 위에 다시 장옷(소렴 10)을 접어놓는다 → 소렴금(소렴 03)의 발 부분과 머리부분을 접어 올리고 우임으로 쓴다 → 종교(소렴 02)를 묶는다 → 황교(소렴 01)를 묶는다(그림 5)



<그림 5> 소렴 상태
하단의 황교를 풀고 있는 모습

3) 대렴 단계

대렴용 황교 5가닥(대렴 01)을 펴놓는다 → 황교 위에 세로로 종교(대렴 02)를 편다 → 종·황교 위에 대렴금(縹衾/대렴 03)을 편다 → 이불 하단에 솜 장옷(대렴 06)을 펼쳐 놓는다 → 이불 상단 쪽으로 다시 솜 장옷(대렴 05)을 겹쳐 놓는다 → 베개(대렴 17)를 놓는다 → 소렴 상태의 시신을 옮겨 놓는다 → 양옆으로 한지를 끼운다 → 복부에 합당고형 바지(대렴 11)를 놓는다 → 그 위에 장옷(대렴 10)을 놓는다 → 가슴에 장저고리(대렴 09)를 놓는다 → 얼굴 위에 수건(대렴 07)에 싼 한삼(대렴 08)을 놓는다(그림 6) → 오른쪽 머리말에 호로(대렴 13·14)를 놓는다 → 왼쪽 머리말에 실꾸리(대렴 15)를 놓는다 → 오른쪽 옆구리에 부채(대렴 12)를 놓는다 → 오른쪽 대퇴부 측면에 버선 1쌍(대렴 16)을 끼운다 → 아래쪽 장옷(대렴 06)을 좌임으로 여민다 → 위쪽 장옷(대렴 05)을 좌임으로 여민다 → 하단에 한삼(대렴 04)을 접어놓는다 → 대렴금을 발과 머리

순으로 싼 후 좌임으로 여민다 → 종교(대렴 02)를 묶는다 → 황교(대렴 01)를 묶는다 → 관 안에 지요(대렴 19)와 석(대렴 18)을 깔고 대렴 상태의 시신을 입관한다



<그림 6> 대렴 상태
한삼(유물 11)을 싼 수건(유물 10)

4. 염습과정의 특징

이 묘의 황교나 종교 등의 사용과 그 외 다른 염습구의 사용에 있어서는 예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염습구 전체는 정성스럽게 다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고 습의로 사용된 옷 중 上服 이외에는 거의 고운 바느질로 제작되어 있었다. 喪事에 앞서 미리 마련되어 있던 옷일 가능성도 있으나 조각을 이용한 흔적이나 기타 정황으로 보아 생시의 옷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옷을 포함하여 홑 염습구는 26점, 겹으로 제작된 염습구는 11점, 솜을 넣은 염습구는 16점, 솜누비 1점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솜 역시 적지 않게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오나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 특이하며 옷 중에 몇 점은 뒤집혀진 채로 접혀져서 수거되기도 하였다. 소매가 특별히 긴 한삼 세 점과 호로 두 점, 부채 등이 남편 이명정의 襚禮에 의한 물품이 아닐까 짐작된다.

본 일선문서 묘의 염습과정 중 예서와 다른 점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여밈 방향

예서에 습의는 우임으로 하고 소렴과 대렴은 좌임

으로 한다고 하였다. 즉 우임은 습의에 적용되는 반면, 좌임은 소렴과 대렴에서의 上服이나 散衣의 여밈과 衾의 여밈에 적용된다. 우임은 생시의 여밈 방식이므로 습의를 우임으로 착용시킨다 함은 아직 죽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음을 의미한다.⁸⁾ 어느 예서에도 여자들이기 때문에 여밈의 방향을 바꾸라고 한 대목은 없다.

일선 문씨의 경우, 상의 8벌을 모두 좌임으로 입혔다(그림 7). 상의를 좌임으로 착용한 것은 예서와는 다른 여밈 방식이다. 반면에 동일한 습의이지만 上服은 우임으로 여밈고 있다(그림 8). 현재로서는 그 이유를 밝히기 어렵다.



<그림 7> 좌임의 습의



<그림 8> 우임의 습의

한편 예서에는 소렴에 좌임을 한다고 하였는데 일

선문씨 묘의 경우는 금 여밈에 있어 여전히 우임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대렴금 위에 펼쳐서 소렴 상태의 시신을 싸고 있는 두 벌의 장옷 여밈에서는 좌임이 확인되었다(그림 9).



<그림 9> 좌임의 대렴금(下: 머리부분)

이불과 염습의의 여밈 방향은 고래로부터 예서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일선문씨의 경우에는 禮습대로 실행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추후 다른 여성 묘 여밈 방식과 비교해 볼 때 명확하게 설명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不紐

'좌임불뉴'는 여밈과 관련되어 대소렴에 적용되는 염습 원칙 중의 하나이다. 전향에서 언급했듯이 대소렴 단계에서는 염의나 이불을 좌임으로 여밈고 끈은 묶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와 관련하여 '불뉴'는 옷의 고름과 중형교의 묶음에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불뉴의 원칙은 후일에 염습의로 사용되는 옷들의 고름을 잘라버리는 풍습을 만들어 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선문씨의 염습의에서는 일부러 고름을 자른 흔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고름을 그대로 두되, 고리를 내서 묶지는 않았다. '불뉴'의 개념이 대소렴의 중형교를 묶을 때 끈의 고리를 내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해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리를 내어 묶는 대신 맞은 편 끈과 함께 돌려서 다시 제 끈에 감아 고정시키

8) 이은주(1998), '한국 전통복식에 투영된 좌우 개념', 《服飾》 第38號, p.349

는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다(그림 10). 끈 양끝을 돌려 엮는다고 하는 편이 옳을 것이다.



<그림 10> 작임몰뉴(소렴의 예)

3) 稱數

일선문씨의 상례는 남편 이명정이 종8품이었으므로 大夫가 아닌 士의 喪禮에 준하여 행해졌을 것이다. 그렇다면 《국조오례의》 규정에 의한 공식적인 칭수는 습 3칭, 소렴 19칭, 대렴 30칭이다. 이는 하나의 기준일 뿐, 궁중 왕가의 상례에서도 칭수가 지켜지지 않았음을 《실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상사의 상황에 맞추어 편의에 따랐음을 말하는 것이다.

일선문씨의 경우에도 이 규정은 지켜지지 않았다. 습은 거의 9칭에 해당되는 반면, 소렴은 포나 상하 별을 1칭으로 하다면 2칭뿐이며 상의나 하의 하나를 칭으로 친다면 9칭에 해당된다. 대렴 역시 후하게 쳐야 6칭이 될 뿐이다. 그리고 대렴보다는 습 단계에서 오히려 많은 칭수가 사용된 것이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표 6> 분석대상 염습의 구성표

유물 명칭	별수(대렴·소렴·습)	유물 명칭	별수(대렴·소렴·습)
장삼	1(0·0·1)	대대	1(0·0·1)
장옷	4(3·1·0)	장저고리	12(1·6·5)
단저고리	1(0·0·1)	적삼	2(0·0·2)
한삼	3(2·1·0)	치마	5(0·1·4)
개당고형 바지	2(0·0·2)	합당고형 바지	3(1·0·2)
행전	1(0·0·1)	버선	4(1·0·3)
신발	1(0·0·1)	소모자	1(0·0·1)
14품목 41(8·9·24)점			

IV. 염습의 유형과 조형적 특징

분석 대상의 염습의 자료들은 다음 <표 6>과 같다. 염습구 중 衾과 絞, 枕, 地褥, 握手, 幘目, 葫蘆를 비롯한 소품류들을 제외한, 총 14품목의 41점이 고찰 대상이 되었으며 용도별로는 대렴용 8점, 소렴용 9점, 습용 24점으로 구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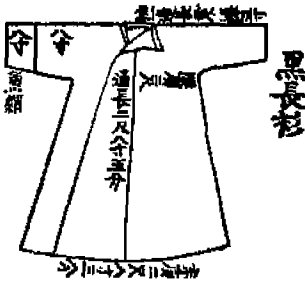
대렴용 복식류(8점)에 장옷 3점, 한삼 2점, 장저고리 1점, 합당고형 바지 1점, 버선 1쌍이 포함되어 있으며 소렴용 복식류(9점)에는 장옷 1점, 장저고리 6점, 한삼 1점, 치마 1점이다. 습용 복식류(24점)에는 上服 1점, 上服用 大帶 1점, 장저고리 5점, 단저고리 1점, 적삼 2점, 개당고형 바지 2점, 합당고형 바지 2점, 치마 4점, 행전 1쌍, 버선 3쌍, 신발 1쌍, 소모자 1점이 포함되어 있다.

1. 포 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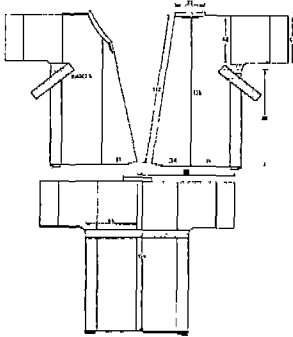
본 묘에서는 두 종류의 포가 확인되었다. 즉 습의 上服用으로 착용되었던 모시 袍 1점과 장옷이다. 장옷은 명주 2점, 면포 1점, 저마 1점으로 4점인데, 수거된 포는 모두 여성용인 것으로 판단된다.

1) 上服

본 묘에서는 《樂學軌範(1493)》에 제시된 女妓服飾의 '長衫(그림 11)'과 유사한 변령 깃을 지닌 上服(그림 12)이 한 점 수거되었다.



<그림 11> 《樂學軌範》의 女妓 長衫



<그림 12> 일선문씨 上服 실측도(유물 38)

수거된 습용 모시 홑 上服은 팔이 끼워지지 않은 채 시신을 싸고 있었으며 허리에는 명주 大帶를 동심결로 맺고 있었다. 깃 일부와 오른쪽 앞길 부분의 훼손이 심하지만 발굴 당시 앞길의 찢어진 깃(그림 13)이 《악학궤범》의 것과 아주 흡사하다.



<그림 13> 일선문씨 上服의 찢어진 깃

겨드랑 아래 옆선은 남자 단령이나 직령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길게 트여있고 길에 연결되어 있는 대형 사각무가 안으로 접혀 맞추름으로 정리되어 있다. 당시 남성의 단령이나 직령의 무와는 다르지만 무의 존재로 볼 때, 이 옷의 용도가 범상치 않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악학궤범》의 그림에는 무의 형태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그림 12>에서도 확인되듯이 무를 안으로 넣었을 때 전체적인 실루엣이 동일하다. 이 上服이 단령을 약식으로 제작한 것인지, 아니면 《악학궤범》의 장삼과 동일한 것인지를 밝히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일 것이다.

2) 長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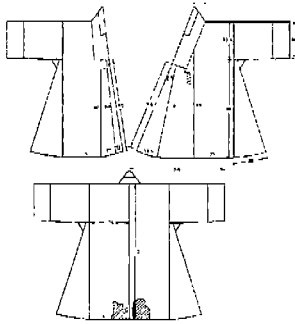
'장옷'이라고 불리어졌던 長衣는 조선시대 여성의 대표적인 袍로서, 좌우 모두 들어 달린 목관형 깃이 특징이다. 조선 전기에는 대체적으로 袍로 착용되었던 것이므로 좌우 동형 설이 달린 조선 후기의 장옷과는 달리 좌우 설의 크기와 구조에 차이를 보인다. 결선은 모두 이중설일지라도 안설은 이중설과 단일설이 혼재되어 있으며 그 나비도 결선에 비해 전체적으로 좁다. 겹고름이 달린 위치에서도 머리에 쓰기 보다는 직접 착용하였던 옷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일선문씨의 묘에서는 명주 솜장옷 2점, 모시 홑장옷 1점, 면포 겹장옷 1점으로 모두 4점이 수거되었는데, 대령과 소령에만 사용되었다. 그리고 조선 전기 기록 중 장옷의 색상으로 흰색과 자주색⁹⁾, 沈香色¹⁰⁾ 확인되는데, 본 묘에서는 아청색¹¹⁾과 소색의 장옷이 수거되었다.

결선은 모두 유사한 나비의 이중설 구조이며 안설의 경우에는 다소의 차이가 있다. 솜장옷 두 점(유물 8·9)은 안설 모두 이중설으로 <그림 14>의 구조와 같다. 즉 안깃 나비 중간에 좁은 두 조각의 설이 달려 있다. 그러나 모시 홑장옷(유물 13)과 면포 겹장옷(유물 32)은 안설이 단일설이며 그 크기와 위치가

9) 조항범(1998), 《註解 순천김씨 묘출토간찰》, 태학사 참조. '장옷을 지뢰(芝履)로 염색한다'(p.108), '흰 당옷'(p.406)
 10) 吳希文(李民樹 譯)(1990), *ibid*, p.246, 丁酉(1597) 12月 17日
 11) 수거 당시에는 아청색이 분명하였으나 세척 이후 갈색으로 변화되었다.

다르다. 저마 홀 장옷의 안섶은 안깃 나비를 약간 벗어나서 달렸으므로 안섶의 나비가 다소 넓은 편이고 면포 겹장옷의 안섶은 안깃 나비 중간에 위치한 단 일섶으로 규모가 작은 편이다. 그리고 겨드랑 무는 모두 소형의 삼각 무¹²⁾와 사다리꼴 무, 두 장으로 구성된 두 쪽형의 무였다.



<그림 14> 아청색 명주 솜잠옷(유물 9)

2. 상의류

상의류의 총칭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시대의 저고리 명칭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다양하다. 특히 궁중을 중심으로 한 여성복식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명칭에 따른 구분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근자의 연구자들은 편의상 옷깃별로 분류하여 목판깃 저고리, 칼깃 저고리, 당코깃 저고리 등으로 분류하기도 하고¹³⁾ 길이에 따라 장저고리형(80cm 내외), 중저고리형(60~70cm), 단저고리형(50cm 내외)으로 구분하기도 한다.¹⁴⁾

사대부가의 본묘에서 출토되는 저고리류는 반가 기록에 등장하는 명칭에 의거하여 분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일반 사대부가의 기록에 등장하는 명칭은 궁중의 저고리류 명칭에 비해서 그렇

게 다양하지는 않다. 본 묘에서 출토된 상의류는 대략 네 종류로 분류되었는데 당시 사대부가의 문헌에 보이는 명칭과도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는 의외의 기능을 지녔던 것으로 판단되는 길저고리류를 '長赤古里'와 '短赤古里'로 분류하였다. 吳希文의 《瓊尾錄》 庚子年(1600) 10월 24일의 기록¹⁵⁾에서 다음과 같은 명칭의 단서를 구할 수 있다.

'...結城은 失火로 인해서 다 탔기 때문에...(중략)... 집사람이 입었던 察色 長赤古里를 壬母에게 보냈다. 또 報恩, 딸이 襦赤古里를 두고 갔는데 이제 비로소 보에 싸서 보냈다...'

본 연구에서는 길이가 80cm 내외로 길고 겨드랑 아래로 길게 옆트임이 있는 것을 '장저고리'로 지칭하였으며 길이가 56cm로 장저고리에 비해 짧으면서 옆트임이 없는 것을 '단저고리'로 분류하였다. 한편 속저고리로 판단되는 옷은 특히 소매의 길이에 의해 분류하였다. 화장이 100cm 이상되는 긴 소매의 것을 '한삼'으로 분류하였고 보통 일반적인 소매 길이에 해당되는 상의는 '적삼'으로 분류하였다.

1) 장저고리

수거된 장저고리는 모두 12점으로, 본 묘의 유물 중 단일 복식으로는 가장 많다. 그만큼 당시 반가의 여성들이 많이 착용했던 옷이라는 의미로도 이해된다. 뒷길이는 70.5~82.5cm 정도의 긴 길이였는데, 짧은 저고리보다는 외레적 성격이 내포된 옷으로 판단된다. '赤古里'를 '唐衣'의 전신으로 보는 경우¹⁶⁾도 있지만 본 연구의 분류에 의하면 오히려 '장저고리'를 후기 唐衣의 전신으로 볼 수 있다.

<그림 15>의 갈변된 寶紋緞 솜 장저고리(유물 44)

12) 겨드랑 부분에 정사각형의 무늬 대었으나 뒤길 쪽으로 넘어간 부분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면에서 보면 삼각형으로 보인다.

13) 장인우·이춘계(1995), '16·17세기 저고리에 관한 연구', 《服飾》 第24號, pp.31~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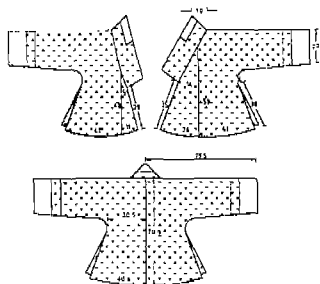
14) 박성실(1997), '朝鮮朝의 치마·저고리', 《朝鮮朝 치마·저고리 特別展》, 檀國大學校附屬 石岫善紀念民俗博物館, p.29

15) 吳希文(李民樹 譯)(1990), *ibid*, p.482

16) 홍나영·김소현(1998), '宮中崇佛圖에 나타난 16세기 복식연구', 《服飾》 第38號, p.311

는 소매 끝에 등정감과 같은 명주를 사용하였다. 목판깃은 좌우 모두 내다 달린 형이고 가장자리에는 곱게 흠질로 선을 두르고 있다. 고름은 바느질 흔적으로 볼 때 2cm 나비의 짧은 길이의 직접 부착형 겹고름이 달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본 묘에서 수거된 나머지 장저고리는 모두 35cm 내외의 폭을 가진 옷감으로 제작된 것인데 겨드랑 아래쪽에 별도의 'ㄱ'자형 무가 달려 있다. 그러나 <유물 44>의 보문단 장저고리의 경우는 광폭의 옷감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무가 별도로 붙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전체적인 실루엣에는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일반 35cm 정도의 옷감을 사용할 때 필연적으로 생기는 길과 소매 부분의 연결선 부위를 앞·뒤길 모두에 흠질로 징군 흔적이 확인된다. 길과 소매 부분을 구분하기 위한 암시적인 선으로 생각된다.



<그림 15> 보문단 장저고리 실측도(유물 44/습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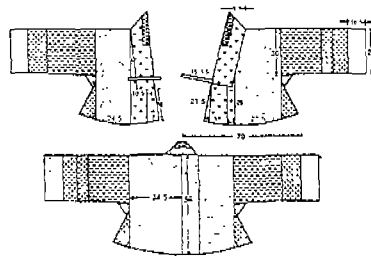
2) 단저고리

본 연구에서는 옆트임이 있는 장저고리와는 달리, 길이가 상대적으로 짧고(뒷길이 54cm) 옆이 안 트인 상의를 단저고리(그림 16)로 지칭하였다. 단저고리는 한자 명칭으로 '小褌子' 또는 '短赤古里'에 해당될 것으로 생각된다. 순천김씨 묘 언간에는 김씨 친정모친의 '자근 저구리'¹⁷⁾ 기록이 보인다.

단저고리는 한 점만이 수거되었는데 습용으로 세 번째 착용한 옷이다. 옆선은 막히고 겨드랑에는 삼각무와 사다리꼴무가 연결된 두 쪽의 무로 구성되어

있다. 'ㄱ'자형의 장저고리 겨드랑 무와 구별된다. 그리고 명주와 운문단 등 다양한 소재를 조각조각 이어서 만든 것이 특징이다. 알뜰한 살림살이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장저고리에서와 마찬가지로 암시적인 선 바느질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뒷길 중심선에 바느질 선이 없고 4cm 우측으로 치우친 위치에 첫 번째 슬기 이음선이 있다. 중심선에 해당되는 부분을 표시하기 위하여 뒷중심 상부에 4cm의 길이로 중심선 위치를 암시하기 위한 바느질 선이 있어 흥미롭다.

또 특이한 점은 소매 안에 달린 두 장의 한삼이다. 소매 안쪽에 별도의 길고(30cm/겉), 짧은(27cm/안) 원통형 한삼 두 장을 거칠게 꿰매어 붙였는데, 단저고리 안에 입은 두 벌의 습용 적삼을 한삼으로 변용하고자 하는 의도였던 것은 아닐까 한다.



<그림 16> 短赤古里 실측도(유물 45/습용 11)

3) 적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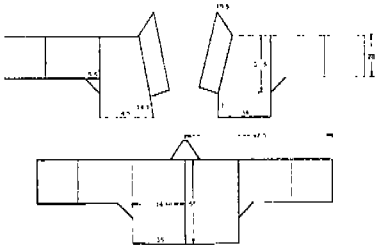
적삼은 안에 입는 비교적 간단한 상의였을 것이다. 기록에서는 요즈음의 적삼과는 달리 '홀'뿐만 아니라 '겹'도 확인된다. '...겹적삼 봇타서 저구리를 히여 주어...'¹⁸⁾라는 대목을 보면 적삼과 저고리가 재질의 차이는 크게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懿仁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1600년)의 대령용 外備衣褂 기록에서는 흰색 이외에 황색, 아청색, 남색 등 다양한 적삼의 색상도 확인된다.

본 묘에서 출토된 적삼은 두 점인데 모두 소재로 추정되며 습의로 가장 안에 착용하고 있었다. 모

17) 조항범(1998), *ibid.*, p.652

18) *ibid.*, p.1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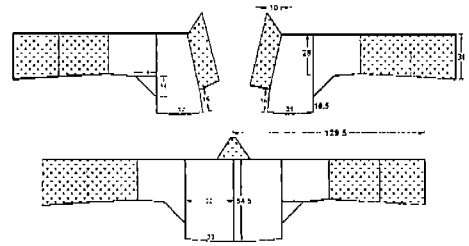
두 홀으로 제작되었으며 모시 적삼(뒷길이 51/화장 73.5)을 안에 입고 위에 명주 적삼(그림 17, 뒷길이 55/화장 97.5)을 입었다. 특히 명주 적삼은 한삼으로 분류된 다른 옷에서 보이듯이 좌우 섶이 모두 없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섶이 좌우에 달린 모시 적삼에 비해 소매도 긴 편이다. 깃은 두 점 모두 좌우 모두 내어 달린 목판깃이고 고름은 확인이 불가능했다. 겨드랑 무는 소매감에 사각형을 붙여서 마름질하여 앞 뒤 각각 대각선으로 접어 올려 삼각형을 만든 것인데, 이는 이미 金欽祖(1461~1528) 묘 출토의 한삼에서 확인된 바 있다. 이러한 무의 양식이 겉에 착용된 것으로 보이는 저고리류와는 구별된다.



<그림 17> 명주 홀 적삼 실측도(유물 46/습 12)

으로 보아 본래 의례용으로 착용되었으나 점차 간편을 좇아 소매 짧은 일상적인 적삼을 입고 손을 가릴 수 있는 별도의 긴 원통형 부분을 만들어 사용하게 된 것은 아닐까 한다.

본 묘에서 한삼으로 확인된 것은 세 점이다. 대령용이 2점, 소령용이 1점인데, <그림 18>에서 볼 수 있듯이 소매가 세 폭이나 되었다. 또한 깃과 소매 부분에는 길과 다른 소재를 사용하고 있는데 길은 삼베로 하되, 소매와 깃에는 고운 면포나 명주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세 점 모두 섶이 달리지 않았다는 것이 주목된다. 옆선은 4cm 내외로 트여있으며 겨드랑 무는 좌우 비대칭 솔기선을 지닌 삼각무로서 적삼의 무 형태와 같다.



<그림 18> 마포 한삼(유물 11/대령 08)

4) 汗衫

《譯語類解》에 汗衫은 '솜땀기적삼'이라고 언해되어 있다.¹⁹⁾ 적삼 중에서도 가장 안에 착용하는 옷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소매의 길이를 기준으로 적삼과 구별하였다. 《악학궤범》 處容 冠服 중 汗衫 圖像에는 한 쪽 소매가 4척 5촌으로 기록되어 있다.²⁰⁾ 함께 착용하는 단령형 '衣'의 소매 한 쪽이 2척 7촌 5분²¹⁾인 것에 비하면 한삼의 소매가 상당히 긴 것을 알 수 있다.

조선 후기에는 전기와 달리 손목에 끼는 형태의 한삼이 있다. 이것은 긴 소매의 잔재로 생각된다. 한삼이라는 명칭은 주로 예서의 기록에서 확인되는 것

3. 하의류

1) 바지류

일선문씨의 묘에서 출토된 여성 바지는 밀트임의 유무를 기준으로 두 유형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여성 바지의 기본적인 두 유형은 조선 후기 이후 20세기초까지도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착장 순서는 밀트임이 없는 바지를 먼저 착용하고 그 위에 밀이 트인 바지를 착용하는 것이다. 안에 입은 바지류는 주로 면포를 사용하였고 가장 겉에 입은 솜바지는 명주(안감 마포)를 사용하였다. 조선 후기의 용

19) 愼以行 外(1690), 《譯語類解》, 亞細亞文化社 영인본(1974), p.91
 20) 成俔 外(1493), 《樂學軌範》, 亞細亞文化社 영인본(1975), p.413
 21) *ibid.*, p.409

어를 빌어 표현하자면 '속속곳'을 착용하고 그 위에 '바지'를 착용하는 것이다. 크게 두 유형으로 구분되는 조선 전기의 바지를 과연 무엇이라고 부르고 기록했는지 밝히는 것도 하나의 과제이다.

(1) 개당고형 바지

밑이 트인 개당고형 바지는 시신에 착용되었던 두 점만이 수거되었다. 한 점은 면포 겹바지이고 다른 한 점은 병주 솜바지(그림 19)였는데, '명주 바지'를 걸에 입었다. 여밈용 트임은 모두 뒷중심에 있었고 허리끈이 달렸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리고 주름은 우측에서 좌측으로의 방향성을 지니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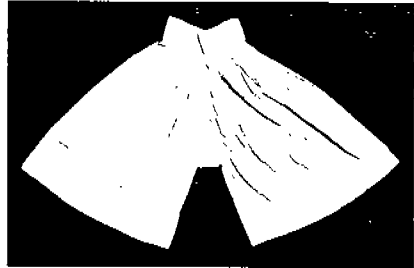


<그림 19> 개당고형 바지(유물 54)

(2) 합당고형 바지

합당고형 바지는 모두 세 벌 수거되었다. 두 벌은 개당고형 바지 안에 착용했는데 특히 가장 안에 입은 바지의 말기에는 말기 안쪽으로 어깨끈이 잘린 부분이 남아 있었다. 습의로 제작된 것이 아니라 평상시의 옷임을 알 수 있다. 옆트임은 오른쪽에 두고 착용하였으며 끈의 위치로 보아 오른쪽 어깨에 걸치는 것으로 판단되며 가장 안에 입는 옷에 어깨끈을 매어 그 위에 입는 바지나 치마가 흘러내리지 않고 허리에 지탱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주름의 방향은 세 점 모두 달라서 일관성이 없었다. 가장 안에 착용한 합당고형 바지(습 21)에는 허리끈이 있는 반면에 두 번째 착용한 바지(습 20)

에는 끈이 없었다. 그리고 홑 합당고형 바지의 사타구니 안쪽에는 양쪽으로 밑바대²²⁾를 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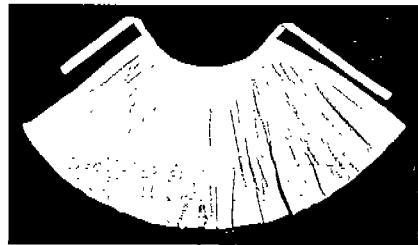


<그림 20> 합당고형 바지(유물 16)

2) 치마

치마는 모두 5점이 수거되었다. 면포 겹치마 1점이 소렴용으로 수거되었고 나머지 4점은 모두 시신에 착용되었던 습의이다. 네 점 중 두 점이 명주 솜치마인데 솜치마 한 점에서 염습의 층 유일한 누비가 확인되었다 그 외에 명주 홑치마, 저포 홑치마가 각각 1점씩이다.

습용 치마 네 점은 모두 심하게 파손되었는데, 명주 솜치마 두 점은 길이가 80cm 내외로 실제 허리에 착용하는 일상적 치마 유형이다. 그 중 솜 누비 치마에는 다른 묘에서도 종종 확인되는 하단 부위의 턱(tuck) 장식이 있었다. 나머지 홑치마 두 점은 100cm 내외의 길이가 긴치마였다.



<그림 21> 면포 겹 치마(유물 33/소렴 11)

4. 소품류

1) 행전

22) 이은주(1998), '金欽祖(1461-1528) 분묘의 출토복식 자료분석', 榮州市 編, 《判決事 金欽祖先生 合葬墓 發掘調査 報告書》, 榮州市, p.295 <그림 5-1>

여성용 행전(그림 22)은 지금까지의 발굴 자료에서 처음으로 확인되었다. 명주 홀으로 만들었는데 고운 바느질이 특히 눈에 띈다. 여성도 평상시에 행전을 착용했던 것인지, 아니면 상례로서 특수하게 사용되었던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유사한 형태가 조선 후기 金得臣의 풍속화인 <路上見謁>에서 확인된다. 발 밑으로 고리가 있어서 편함과 동시에 바이어스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바지의 부피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신축성이 뛰어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종아리 뒤쪽에 달린 끈으로 묶도록 되어 있다.



<그림 22> 행전(측면) (유물 59/습 25)

2) 버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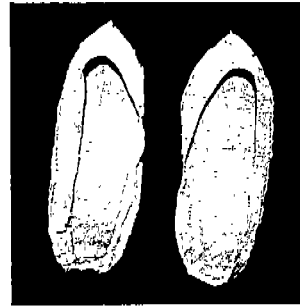
버선(그림 23)은 모두 4점이 발굴되었다. 모두 걸감 면포에 안감 마포를 사용했으며 그 중 두 점이 습 버전이다. 특히 습용으로는 세 켄레를 겹쳐 신었다. 다른 동시대 묘의 버선과 형태가 동일하며 후기의 것과는 달리 수축 선이 직선으로 되어 있다. 안감 쪽으로는 제단이 6~7cm 들어가 있다.



<그림 23> 버선 1쌍(유물 19/대림 16)

3) 신발

일선문씨가 신고 있던 신발(그림 24)은 습용으로 제작된 것이다. 안팎과 바닥 모두 굵은 삼베로 만든 것인데 살짝 올라간 앞코의 선이 고우며 전체적으로 그 형태가 안정적이다.



<그림 24> 습신 1쌍(유물 60/습 26)

4) 모자

당시의 기록에서는 '敢頭(국조오례의)', '帽子(三才圖會)'라는 명칭을 찾을 수 있으며 정수리 부분에 삼각형 조각이 여섯 쪽 연결되어 '六合帽', '六瓣帽'라고도 한다. 정수리 정점에는 아무런 장식이 없었고 하단부에는 蠶輪이 들려져 있다(그림 25). 이와 동일한 모자는 이미 남성의 묘에서 여러 건 수거된 바 있으나 여성이 직접 착용하고 있는 경우는 처음 확인되었다. 이것 역시 행전과 마찬가지로 상례로 사용된 것인지, 평상시에도 사용되었던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림 25> 소모자(유물 62/습 28)

V. 맺음말

을 위해 묘를 이장하던 중 고성이씨 15세손 李命貞(1504~1565)의 부부 합장묘에서 이명정 보다 일찍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配 一善文氏가 많은 유물과 함께 미이라로 발굴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일선문씨의 묘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중심으로 당시의 염습과정을 재구성해 보고 염습과정의 특수성 등을 당시 예서의 원칙과 비교·고찰하였다. 아울러 염습의에 해당되는 복식류를 중심으로 당시 16세기 중엽의 안동 일가의 여성 복식의 조형성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려 말 이후 성리학의 전파와 정착 이후 16세기 중엽에는 이미 유교식 상장례가 정착되었으며 안동지역 역시 그 예외는 아니었다. 따라서 일선문씨 묘는 奉仕(종8품)를 지낸 남편 이명정의 품계에 맞는 士喪禮에 의거한 상장례가 이루어졌는데, 회곽묘의 구조나 治葬諸具에서 그러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교적 상장례에서는 많은 물품들이 사용되며 기능에 따라 副葬品, 治葬諸具, 補空品, 斂葬具(大斂具, 小斂具, 襲具) 등으로 구분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염습구 중 복식류를 특별히 '염습의'로 분류하였다.

출토유물의 총 점수는 63점인데 치관제구 3점, 대렴구 19점, 소렴구 12점, 습구 29점으로 정리되었다. 염습과정은 유물 상태로 보아 전체적으로 정성스럽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습의는 가장 곁에 사용한 모시 上服만이 新衣로 제작된 것이었고 다른 옷들은 평소 착용하던 옷들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한삼 세 점과 부채, 호로 2점 등이 襚禮 物品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되었다. 염습과정에서 '여밌' 방향의 문제와 '不紐' 양상, 임의적 '칭수' 사용 등이 확인되었다. 여밌 방향은 특히 옷 여밌과 이불 여밌 등에

적용되는 원칙으로 습에서 우입, 대소렴에서 좌입이 사용되는 것이 원칙인데, 습의 중 치마나 바지의 여밌은 오른쪽으로 되어 있었던 반면 上服을 제외한 8점의 습 상의는 모두 좌입으로 착장되어 있었다. '불뉴'의 의미는 여러 의미로 해석되면서 옷고름을 자르는 관행까지 만들어냈지만 이번 사례에서 고름은 자르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이며 단지 고리를 만들어 묶지 않으며 絺布의 양끝은 고리를 내어 묶지 않고 돌려 엮는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염습에 사용한 옷의 칭수는 《국조오례의》 기준에 전혀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喪事의 상황에 맞추어 편의에 따른 칭수를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염습구 중 염습의로 분류된 복식류는 총 41점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그 유형 중 포류에는 上服과 장옷이 있었다. 특히 상복의 깃 형태는 《樂學軌範》의 흑장삼과 일치하였다. 상의류에는 장저고리, 단저고리, 적삼, 한삼이 있었는데, 이들 상의류는 소재나 색상, 길이, 옆트임의 유무, 무의 구조, 소매의 길이 등에 의거하여 분류되었다.

하의류 중 바지는 밑이 트인 개당고형 바지와 밑이 막힌 합당고형 바지로 분류되었으며 치마는 허리 착용의 보통 길이와 긴 길이 두 유형이 확인되었고 그 중에는 아랫단 부위에 접음 단 장식이 있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여성의 행전 착장이 처음 확인되었다. 버선, 신발, 六瓣帽형의 모자도 있었다.

이상과 같이 16세기 중엽의 여성에게 행해진 염습과정의 일례를 확인하고 염습의를 통해 당시 복식의 조형성을 알아보았다. 上服이나 바지류 등의 명칭 문제와 아울러 여성의 행전 착용이나 소모자 착용 등에 대한 후일의 보완 연구를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